

고흥에 조정래 가족문학관 문 열었다

부친 조종현·아내 김초혜 문학 망라 두원면 운대리에 456㎡ 규모 개관 조정래 “집필 끝나면 독자 만날 것”

고흥에 국내 첫 가족문학관이 건립돼 화제다. 한국 문학의 거장이자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74), 그의 부친인 시조시인 조종현(1906~1989), 조정래 작가 부인인 시인 김초혜(74)의 문학사를 집대성한 가족문학관이 고흥에 문을 열었다.

고흥군은 두원면 운대리에 건립된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이하 가족문학관)에서 지난 30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소설 ‘남한산성’의 저자 김훈 작가와 유재영·김영재 시조시인, 조종현 선생의 별제자인 활안스님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정래는 근현대사 이면에 드리워진 참상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묻고 작품에 투영해온 작가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대하소설은 총 판매부수가 1500만부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선친 조종현은 고흥 출신으로 선암사에서 출가했다. 만해 한용운과 함께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민당’을 결성해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28세에 결혼해 대처승이 되었고, 해방 후 환속해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1960년 시조문학을 창간하고 시조부흥운동을 전개한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조시인이다.

조종현의 문단 데뷔는 일제 강점기 1929년 동요 ‘엄마 가락지’를 조선일보에 발표하고, 1930년 시조 ‘그리운 정’을 동아일보에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불교의 정신세계와 자연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의 자녀 8남매 중 차남인 조정래는 최근 한국 현대문학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조정래의 아내 김초혜는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인이다. 1964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연작 시 ‘사랑’ 시리즈를 담은 시집 3권을 비롯해 ‘어머니’ 등 11권의 시집을 냈으며 정지용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시조시인 ‘철은 조종현 선생’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



지난 30일 고흥군 두원면에 개관한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 전경. 위는 문학실 내부.

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같은 해 12월 학술대회에서는 조정래 작가의 오늘이 있기까지 조종현 선생의 영향이 컸음이 확인됐다. 학술대회 이후 조종현 선생과 조정래 작가, 조 작가의 아내 김초혜 시인을 위한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조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자료 1274점을 기증받아 문학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문학관은 456.67㎡(138평)에 지상 1층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됐다. 조종현 문학실, 소설가 조정래 문학실, 시인 김초혜 문학실 총 3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간은 문학예술인 3대의 삶과 문학세계를 담고 있다.

조정래 작가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 내 이름을 딴 문학관이 3개가 됐으니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며 “지금 쓰고 있는 소설 집필을 끝낸 뒤 매달 마지막주 이 세 문학관을 돌며 독자와 자유롭게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정래 작가에게는 전북 김제 ‘조정래 아리랑문학관’, 보성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에 이어 이름을 건 세 번째 문학관이다.

또한 조 작가는 아내 김초혜 시인이 가족문학관 건립에 반대해 건립이 무산될 뻔한 사연도 밝혔다. “아버지를 기리는 문학관이 생기니 이보다 기쁜 게 없었나 하고 황홀한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집사람이 ‘아들 잘 되서, 남편 잘 만나서 문학관 생긴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문학관에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고 공격하더라.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고흥군수에게 보류하자고 편지를 썼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전화해 언제 건립하냐고 성화를 해대고 고흥군수가 군민들에게 한 약속도 있어서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남뉴스



이양숙 작가 남편에 복합문화공간 ‘조이’ 오픈

1층 카페·공연장 2층 갤러리 31일까지 7번째 개인전

갤러리 리제 관장을 지냈던 이양숙 작가가 복합문화공간 ‘조이’와 갤러리 카페 ‘꽃씨도둑’을 오픈했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나주시 남평읍에 속하지만 남구 지산재에서 2분 거리에 있어 광주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130평 규모의 공간에 1층은 카페와 공연장을, 2층은 갤러리를 꾸몄다.

‘조이’는 ‘이런 곳에 사람이 울까 싶을’ 정도로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소박한 들녘과 오솔길이 보이고 하루 내내 썩 완행열차와 드문 드문 버스가 지나는 길 옆에 동지를 틀었다.

1층에는 피아노를 놓아둬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게 꾸몄다. 이 작가가 사용하던 스피커와 앰프 등 오디오 시설도 갖춰놓았다. 하루 한 팀씩 예약제로 소규모 그룹에게 공간을 내줄 생각이다. 바로 옆 카페는 개성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통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시골 풍경도 인상적이다. 전시회는 2층 갤러리와 계단을 이용해 진행된다. 내년 정식 개관전에 앞서 공간을 오픈하는 기념으로 자신의 7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재료 연구에 재미를 붙여 전시 때마다 늘 새로움을 시도했던 그녀 작품의 포인트는 ‘변화와 재미’, ‘새로운 시도와 실험’으로, 이번 전시에서도 그 특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대학원에서 공예를 전공한 이 작가는 평면 부조 작업을 주로 해왔다. 파스텔톤 그림의 색채에 팝아트적인 느낌이 강한 그



‘무위도식(無爲徒食)’

녀의 작품은 따뜻하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종이를 여러 겹 울려서 조각도로 파내는 작업은 녹록치 않다.

멘델스존의 명곡 ‘한 여름밤의 꿈’에서 영감을 얻은 ‘한여름밤의 꿈’ 시리즈와 코끼리가 주 소재로 등장하는 ‘너랑 나랑’ 시리즈는 편안함과 정겨움이 느껴진다. 고무 성분 재료 등을 활용해 자연스레 부풀어 오르는 우연성을 가미한 ‘꽃씨도둑’ 시리즈, 두꺼운 마를 활용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선화(禪畵) 느낌이 나는 ‘무위도식(無爲徒食)’ 시리즈도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원광대 미술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북도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광주미술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미협과 공예가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전시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1-334-49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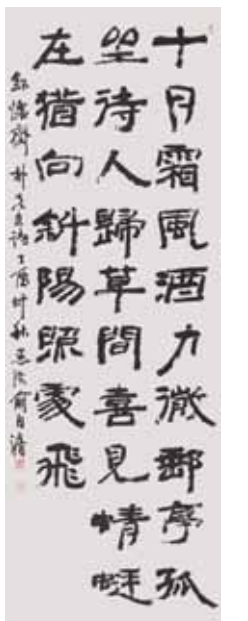
학정연우서회 회원전

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사)학정연우서회(회장 유백준) 41회 회원전이 1일부터 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학정 이돈홍 선생에게 서예를 배우는 이들의 모임인 (사)학정연우서회는 학정서예연구원 문예 연이듬해인 1975년 발족한 후 지금까지 매년 정기전을 열어왔다.

해마다 선현들의 얼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매년 지역 출신 문인들의 문집에 실린 글을 써 전지를 해오고 있는 학정연우서회는 올해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 1526~1593) 선생의 문집에서 시문을 가려 우국충정과 선비정신을 기린다. 광주 출신으로 조선 중기 문인이자 교육자인 회재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병중에도 의병 모집과 보급을 도맡아 제봉 고경명 선생의 의병 활동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전시에는 학정연우서회 이사회장 김종태씨를 비롯해 강덕원, 강수진·김다순·김덕귀씨 등 113명의 회원이 한문서예의 각 서체와 한글, 문인화, 전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학정 선생과 노강 박재호 선생도 찬조 출품했다. 문의 062-222-41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백준 작 ‘題仙巖驛’

‘소리 모아’ 콘서트...‘더 힐링’ 두번째 마당

오늘 전통문화관 서석당

소리 모아 ‘더 힐링’ 두 번째 마당이 1일 오후 7시 30분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여러 색깔의 음악, 세상사는 이야기, 탐험한 막걸리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될 이번 ‘더 힐링’ 두 번째는 박문옥, 박태홍, 최준호 등 소리 모아 트리오와 오정목, 판소리 명창 윤진철, 아마프로 뮤지션 이상열의 플루트, 건반 문정식이 출연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저녁 무렵’, ‘The Boxer’, ‘지극히 고귀한 사랑’, ‘Love me tender’, ‘내 마음의 보석상자’, ‘스카부르페어’(Scarborough Fair), ‘California dreaming’, ‘What is a youth’, ‘나의 의미’, ‘등불’, ‘바다가 보이는 찻집’, ‘봄날은 간다’, ‘윤진철의 가야금 병창’ 등 14곡을 공연한다.



박문옥

무료관람, 문의 010-6548-219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성탄트리점화식 내일 5·18민주광장

2017 광주시 성탄트리점화식이 오는 2일 오후 5시 30분 구도청 5·18민주광장(아시아문화전당 광장)과 충장로우체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성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단협의회, 초교파장로회,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준비위원장 문희성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의 성탄메시지가 이어진다. 성탄트리점화는 안영로 목사와 고문단, 시민대표 등이 함께 한다.

2부는 총장로 우체국으로 자리를 옮겨 공연무대와 트리점화식을 한다. 김재영 목사의 축복기도로 막을 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